

한글版[漢字병기족보] 안동권씨大同譜를 만듭니다

그 收單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CD롬은 전질을 망라한 것으로만 제작합니다.

■보소(譜所)와 수단(收單)

보소는 안동의 대보소(大譜所)를 대종보사의 본사인 태사묘 서재(太師廟西齋)에 두고 서울의 대종보사 분사에 경중보소(京中譜所)를 둡니다. 그리고 수단(收單)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왕에 책자로 인쇄 발행된 각급 세파보(世派譜)에 등재된 자는 전수 그대로 게재하되 변동없이 전재(轉載)할 경우 별도의 수단비를 받지 않습니다.

②기존의 어떤 세파보에도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그 주기를 새로이 추가하는 자는 신규등재자로 봅니다.

③출가자(出嫁者) 또한 기혼자로 보며 그 배우자를 병기하고 차세대는 주기에 포함시키되 자녀의 단대(單代)에 한정합니다.

■주기(註記)의 게재 내용과 요령

①각자의 주기에는 출생지 및 주된 거주지와 사망지·묘지를 표기합니다.

②학력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쓰고 학위는 학사(學士) 이상부터 표기합니다.

③직업은 현재 당국에서 분류한 2만여개의 직종을 원칙으로 표기하며 직위와 경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을 참작하여 기재합니다.

④저술이나 예술창작 또는 출연활동에 관한 것은 출판·전시·공연·상연·상영된 것을 기준하되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도 그 성취가 상당한 것은 기재합니다.

⑤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이름을 영문 또는 기타 문자로 병기합니다.

■계대미상자(系代未詳者) 및 누보자(漏譜者)의 구제

①역대 족보에의 누락자는 그 가첩(家帖)이나 고증자료 또는 방증자료가 그 계대를 추정확인할 수 있게 할 경우 전수 본계를 찾아 입적시켜 드립니다.

②수대전부터 계대를 잃었거나 피란 월남하여 계대를 잃었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든 계대가 미상인 자를 전원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이때는 그 선대의 본적지나 세거지 등으로 추정하여 가장 가까운 파문중의 절사자(絶嗣者)에게 권도입승(權道入承)시키는 것으로 하며 이의 조정은 각해당 문중의 동의를 선행됨을 전제로 대보소에서 최종 결심(決審)합니다.

■제작기간 및 보급

①제작기간은 2000년 5월부터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하여 6월 1일부터 수단을 접수하고 12월 31일에 마감하여 2001년 1월말까지 정단(整單)을 완료하여 2002년 1월에 제작을 완료, 보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②본대동보의 보급은 대종보사의 사업부에서 전담하고 다른 경로로는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③CD롬의 제작판매는 본책 판매를 개시하고부터 약2년이 경과한 후에 보급을 시작하되 사전에 예약을 철저히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밖에 미심한 점은 대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安東權氏大宗會·安東權氏大宗報社

國文版大同譜所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054)857-7705

大宗報社서울分社 京中大同譜所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02)723-4480·732-9139

수단 기간 :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단비 : 기혼자(배우자 포함) 8천원, 미혼자 5천원. 단 선대인과 부부 공히 사망자는 무료임.

수단 접수 : 문중별·종중별 또는 계파별 단체 수합을 권장하나 개별 접수도 환영함.

수단 양식 : 가급적 별지 수단용지의 양식에 따라 기입할 것.(양식용지는 안동의 대종회와 서울의 대종보사 분사에서 우편 등으로 배부하며 복사하여 사용 가능함)

계대미상자 : 족보나 가첩이 없거나 계대(系代)를 잃은 분은 안동의 대종회나 서울의 대종보사 분사로 문의 상담할 것.

접수 및 상담처 : 안동권씨대종회(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전화(054)857-7705·안동권씨대종보사 서울분사(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732-9139)

발간 일정 : 2000년말까지 수단 접수·2001년 1월말까지 정단(整單)·2002년초에 출간·CD롬은 2004년초 판매.

■ 목적과 취지

기존의 모든 족보가 순한문으로 되어 있고 간혹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문주기(漢文註記)에 토를 넣었다 하더라도 한자문맹인 현세대인에게 무용지물이며 한자해독력을 가진 자라도 자기와 선대가 어디에 들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탐색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입니다. 이에 족보를 완전 국역하여 한자를 병기해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색인(索引)을 통해 자기와 선대며 방친(傍親)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만인통용(萬人通用)의 족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족보에 선대의 주기(註記)가 미흡하고 오류되었거나 생물연대가 간지(干支)로만 표기된 것을 보완정리할 곳이 부지기수인데 이번에야말로 고급의 문적과 사서를 총섭렵하여 보완해 바로잡고 생물연대를 간지와 서기로 병기해 놓는 작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족보의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제2의 창보(創譜)라 할만큼 파급효과가 막대한 것입니다. 목하 모든 출판제작은 전산화되었고 서책은 전자출판이 병행되어 책자와 동시에 CD롬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에 책자보다 CD롬이 더욱 선호되는 추세에 따라 이 한글판 대동보는 CD롬으로 병행 제작됩니다.

■사업의 주체

사업의 주체는 안동권씨대종회입니다. 그러나 편수와 전산 제작의 기술적인 면과 발행 보급 등의 실무를 전문 지식을 축적하여 원활히 하기 위해 편의상 현재 대종회와 기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안동권씨대종보사에서 모든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체재와 규모

4·6배판에 6단 종조(縱組:세로쓰기), 본문 9포인트활자 조판에 용지는 본문이 70g백상지, 원색사진판은 120g아트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합니다.

①총 10~15권으로 나누되 시조후 10세15대파를 기준하여 1책을 1천~1천5백면 분량으로 분권(分卷)합니다.

②수권(首卷) 즉 제1권은 공통의 선계로서 시조후 원계(原系)로부터 24세까지로 하고 최종의 미권(尾卷)은 부록과 색인부(索引簿)로 합니다.

③추밀공파·북야공파·부정공파 등 1책으로 수용이 안되는 대파는 2권 이상으로 다시 분책합니다.

④자파분만의 구입을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수권과 미권에 자파권을 1조로 하여 분할 보급할 수 있게 제작합니다.